

제234호 / 2004년 3월호

▶ 발행 : 경상대학교 / 편집 : 홍보실 /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 ☎(055)751-6082 * 84 / FAX (055)751-5049

새소식

200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04학년도 입학식
 2004학년도 1학기 신규사업 시행
 제59회 식목일 행사
 행정조직 개편

단과대학 및 부속기관 소식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식 및 입학식
 최고농·수산업경영자과정 수료식 및 입학식
 IT용 에너지저장 및 변환기술연구센터 개소식
 전산정보원 현판식
 보건진료소 현판식
 학생기숙사 닭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산업시스템공학부 이색적인 졸업식 호응
 김채갑씨 고서 1,100여권 기증
 KBS1 '도전! 역사퀴즈' 왕중왕전 경상대 팀 우승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모집

초청강연 및 세미나

인제대학교 성장모 총장 초청 특강
 인문학연구소 '고구려사, 무엇이 문제인가'에 관한 학술발표대회
 국공립대학도서관·정보학 세미나
 총장동정
 조무제 총장 일본방문
 -자매결연, 민단지도부 초청, 현지 최고관리자과정 개설 등 추진키로

교직원 동정

교수회 신임회장 조규태 교수 선출

신임학장

정년퇴임 교수 훈포장 전수식

문승한 교수 경남교원단체 총연합회 부회장 선출

박기훈 교수 새송이 버섯의 항암활성물질 분리 성공

강희근 교수 『우리 문학 맛보기』 펴내

윤호진 교수 『효행록』 편찬

신규임용교수

총동문회 소식

교명변경을 위한 성명서 / 총동문회산악회 시산제 / 직능별 정기총회

인사발령 및 경조사

발전후원회

2003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박사 48명, 석사 286명, 학사 2,964명 배출

우리 대학교는 2월 25일 국제어학원 종합강의실에서 석·박사 학위수여식을, 학사는 단과대학별로 200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올해로 54회째를 맞이하는 200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는 박사 48명, 석사 286명(일반대학원 224명, 교육대학원 32명, 경영대학원 3명, 행정대학원 7명, 산업대학원 16명, 정보과학대학원 4명), 학사 2,964명으로 총 3,29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특히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조기졸업자 17명, 학사편입자 36명, 일반편입자 123명, 복수전공 191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성낙주 교무처장의 학사보고, 조무제 총장의 학위수여 및 식사, 정구영 총동문회장의 내빈축사, 교가제창, 폐식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2003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사

겨울이 겨울다운 날씨로 대지를 얼어붙게 했던 삼동은 이제 다 지나가고 새움을 듣게 하고 온갖 곳에 희망의 활력을 솟아나게 하는 봄이 우리 캠퍼스에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본 대학교 2003학년도 학위 수여식전에 참석해 주신 지역사회의 유지, 학부모 여러분! 교수와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주어진 과정을 성심으로 이수하여 학위를 받게 되는 학사 2,964명, 6개 대학원 석사 286명, 그리고 박사 48명 졸업생 여러분!

갖가지 고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초심과 같이 각고의 노력으로 형설의 탐을 쌓아 오늘의 보람을 얻게 된 데 대해 본인은 우리 대학의 전 교수, 직원들과 더불어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학위 수여자들과 함께 초조와 신고, 조력과 면려의 뒀안길을 숨죽여 걸어오신 학부모,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아울러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도로 만들어진 온실에서 묘종으로 심겨져 줄기를 올리고 잎을 내며 열매를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정의 물, 소정의 햇빛 그리고 소정의 밑거름을 제공받으면서 주어진 과정에 걸맞는 성장의 역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현실의 들녘이라는 새로운 생존 공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들녘은 목표와 과정과 제도적 보장이 있는 면학의 온실과는 달리 정해진 목표나 과정이 없고 편의와 제도 아래 보호되지도 않는 거칠고 바람부는 광막한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들녘으로 나갈 여러분들에게는 현시점이 가장 불안한 불확실성의 시계(視界) 앞에 던져진 존재, 그 실존을 새겨 보는 전환의 시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밭 들여놓을 현실은 국제적으로는 북핵문제와 이라크 내전문제, 여전히 심각한 테러와 빈곤과 질병 문제에 휩싸여 있고, 거기다 국내 경제는 전망이 어둡고 일자리는 줄어들어 새로운 세대에게 현실은 시계(視界)가 닫힌 어둠의 터널이라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들녘으로 여러분을 내보내는 본인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룰데 없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경상대학교에서 이수한 과정을 통해 현실에 대응하는 개척자로서의 자질을 키워왔던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흔들어도 뿌리는 본질에 두고, 본질을 탐구하되 가치는 실질에 두고, 앞을 바라보되 눈은 미래와 세계에 맞추었던 점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세계 속의 대학으로 확실히 성장해 왔고 지난해 11월 서울대와 함께 국가핵심 연구센터로 지정되는 등 지역국립거점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있으면서 본인이 취임한 이래 전국 최고급의 교육 및 연구 중심대학으로 특성화 차별화하는, 국내 10위권 대학으로 올라서는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학은 서울과 지방이라는 이분법 사고를 무너뜨렸다는 점과 여러분은 캠퍼스 안에서 세계에 적응하는 목소리를 다듬어왔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졸업생 여러분의 역량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새로운 역정을 격려하는 뜻으로 세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개척인으로 사는 생활관을 지니라 당부합니다. 현실은 가치 부재의 혼돈과 미망에 놓여있지만 개척자는 상황이 혼돈과 미망의 수렁일수록 의욕은 오히려 솟아나고 미래를 향한 눈빛은 더욱더 반짝거리는 이에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개척은 기왕의 문화에다 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볼 때, 이른바 '가치혁신'과 같은 개념이 됩니다. 새로운 가치의 창출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경영논리야말로 오늘의 현실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개척자의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공동선 지향의 인생관을 지니라 당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실의 들녘은 제도로 만들어진 온실과는 달라서 정해진 성장 도정이나 주어지는 토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정이나 토양은 확고한 인생관으로 세우고 만들고 개량해 나갈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나라의 현실을 보면 공익보다는 사익이 우선해 있고 나라보다는 정파가 우선에 있는 참으로 북마전과 같은 거대한 구조물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곳으로 들어가 이곳을 개량하고 수선해 내는 길은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있는 '공동선' 지향, 바로 그 처방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세계지향의 시대관을 지니라 당부합니다. 세계는 이제 불변의 경계도 없고 정해진 중심도 따로 없습니다. 21세기라는 시대적 물살은 정보와 지식·기술로 흐를 뿐이지 지역과 변방에 따른 물살로 흐르지 않습니다. 또한 세계에 들고 세계로 서는 일은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가치의 창출이라는 개념으로서 가능한 것임을 깊이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면학의 과정을 마감하고 경상대학교를 떠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 위에 얹혀지는 영광은 곧 여러분 모교의 영광인 것입니다. 부디 개척인으로 사는 생활관과 공동선지향의 인생관, 그리고 세계지향의 시대관으로 다가오는 현실의 역정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주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학위 수위(受位)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3. 2

경상대학교 총장 조 무 제

2004학년도 입학식

-학부·석사·박사 신입생 4,676명 입학

우리 대학교는 3월 2일 대운동장에서 2004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2004학년도 학사 입학생은 이정우(사범대학 외국어교육과) 외 3,738명이며,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 938명(대학원 석사 329명, 박사 205명, 경영대학원 석사 42명, 교육대학원 석사 226명, 산업대학원 석사 39명, 정보과학대학원 석사 30명, 행정대학원 석사 37명, 생명환경대학원 석사 30명)으로 총4,676 명이다.

이번 입학식은 개식, 국민의례, 총장의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 이정우 학생의 신입생 선서, 학교 배지 증정, 총장 식사, 총동문회장의 내빈 축사, 교가 제창, 폐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004학년도 1학기 신규사업 시행

-캠퍼스 패트롤제, 원어강의, 취업진단시스템 등 실시

우리 대학교는 2004학년도 1학기부터 ‘캠퍼스 패트롤제’, ‘원어강의’, ‘취업진단시스템’, ‘대학생 산학협동교육프로그램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을 시행한다.

캠퍼스 패트롤제는 학내 차량·자전거 도난, 야간 사건·사고 방지, 학교 재산 관리,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본부에서 고용한 순찰대(신고전화:0130-300-0112)가 학내를 순찰하여, 학내 도난방지 및 학생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교과 과정에서의 변화는 세계화 교육에 부응한다는 의미로 전공, 교양과목 중 영어·중국어·독어·러시아어로 진행되는 23개 원어강의를 개설했으며, 앞으로 원어강의를 더 늘릴 계획이다.

학생생활취업지원센터에서는 전국 대학 중 최초로 '취업진단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이 학생생활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gsnu.ac.kr/>)에 성적, 자격증 소유 여부 등 현재 능력 상태를 기업의 채용 조건 항목에 맞게 입력하면 취업 가능 기업과 기업 관련 모든 정보, 그리고 각 기업에 근무하는 대학 출신 취업자 현황 및 이력 등을 볼 수 있으며, 또 학생 자신과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산학협력 민관 협의기구’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산학협동교육프로그램’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되어 학생들이 6개월 동안 기업이나 산업현장에서 연수를 받으며 일정 금액과 정규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앞으로 취업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직 계획 단계에 있는 사업으로는 각종 고시 준비생들을 위한 '개척고시관' 건립이 올 6월 착공을 시작해 2005년 11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개척고시관은 기숙사 공터 900여평 부지에 9층 건물로 150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또 어학교육 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영어심화캠프' 확대를 비롯한 영어전용기숙사 건립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어학 교육 강화와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해 본교에서 2, 3년을 수학하고, 본교와 협정을 맺은 외국대학에서 1, 2년을 수학한 후 두 나라 대학에서 두 개의 학위를 받는 '2+2 또는 3+1'제도(가칭)도 외국 대학과 협상 중이다. 노트북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보화 장학금' 제도 또한 3월 중 규정을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다.

제59회 식목일 행사

-학교 연습림에서 나무심기 및 특강 등 현장학습 실시

우리 대학교는 3월 20일 직원 80명, 학생 120명 등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좌천 일원, 대학내, 고성군 영오면 소재 학교 연습림 등지에서 제59회 식목일 행사를 열었다.

대학본부 앞에서 가진 식목일 기념식에서 조무제 총장은 "식목일을 앞두고 학내·외에서 쾌적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말하고 "고성군 학교 연습림에서는 식수와 교육이 함께 이뤄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직원들은 가좌천 일원 및 학내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다.

고성군 학교 연습림에서는 변희섭 교수(산림과학부)가 연습림 현황을, 문현식 교수(산림과학부)가 나무심기 요령과 품종 특성 등을 설명하였으며, 밤나무 묘목 400그루를 심었다.

한편 의과대학, 해양과학대학, 학생기숙사, 부설중·고등학교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게 식목일 행사를 실시하였다.

행정조직 개편

-학생선발, 학생지도, 장학, 학생복지, 취업 등 학생지원처로 집중화

우리 대학교는 업무의 전문화 및 집중화의 필요성과 신규업무의 발생 등 새로운 행정수요 및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지원기능의 강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하였으며, 2월 26일자로 학무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을 개정하였다.

행정조직 개편의 방향은 첫째, 대입지원자의 감소, 우수학생의 유치, 증폭되는 취업난 등의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생지원행정과 관련된 업무인 학생선발, 학생지도, 장학, 학생복지, 취업 등의 업무를 학생처로 집중화하였다. 둘째, 급격히 증대되는 교수 및 학생의 교류와 학위 공동운영과 같은 대학간 학사운영의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련업무 담당부서인 교무처로 이관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신규 업무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지적재산권, 학교기업, 산학협력계약 및 집행 등의 업무를 기획연구처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이관하였다. 넷째, 유사업무를 각기 담당하는 전자계산소와 정보교육원을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조직개편의 주요 요지는 ▲학생처를 학생지원처로 하고 기존의 학생지원과와 장학복지과를 학생복지과와 입학장학과로 대체 ▲교무처 교무과에서 관장하던 학생선발업무(학부)를 학생지원처 입학장학과로 이관 ▲교수

·학생 및 학사운영의 교류협력 업무를 기획연구처 연구지원과와 국제어학원에서 교무처 교무과로 이관(국내·외 대학간 교수 및 학생교류, 학점교류, 유학, 공동 학위수여 등과 관련된 교류협력) ▲교수·학생 및 학사운영의 교류협력 업무를 제외한 대외협력업무는 기획연구처 연구지원과에서 관장 ▲지적재산권, 학교기업, 산학협력계약 및 집행 등의 업무를 기획연구처 연구지원과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이관 ▲전자계산소와 정보교육원을 전산정보원으로 통합하였다.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식 및 입학식 거행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제23기 수료식을 2월 20일 대학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최고관리자과정은 각 기관의 고위관리자 및 사회의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각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도모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일차적으로 목적을 두고 교육을 해 오고 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1989년부터 최고관리자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서부경남과 통영, 계제, 고성지역의 고위관리자를 교육하여 왔으며, 그동안 1,388명을 배출하였다.

이번 수료식에는 38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총장상에는 동명특수장 대표 이성갑씨 외 12명, 원장상 10명, 동창회상 2명이 수상하였다.

한편 3월 11일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정영석 진주시장 외 48명의 제24기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입학식을 개최하였다.

최고농·수산업경영자과정 수료식 및 입학식 거행

이번 수료식에서는 김재희 외 112명(최고농업경영자과정 76명,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36명)이 수료하였으며, 농림부장관상에 김재희(과수), 해양수산부장관상에 배진성(양식어업) 과정생을 비롯하여 총장상 6명, 경상남도 도지사상 9명, 총동문회장상 7명, 학장상 12명 등이 수상하였다.

이미 제9기까지 885명의 최고농업경영자과정생 그리고 제8기까지 308명의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생을 배출하였다.

한편 3월 5일 농업생명과학관에서 최상태(시설채소·화훼) 과정생을 비롯한 125명의 최고농·수산업경영자과정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IT용 에너지저장·변환기술연구센터 개소식

우리 대학교는 2월 27일 남명학관에서 IT용 에너지저장·변환기술연구센터(센터장 김기원) 개소식을 가졌다.

정보통신부는 신 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한 11개 분야의 IT(정보통신) 기술을 연구할 대학 IT연구센터(ITRC)를 선정했다. 우리 대학교 IT연구센터는 「Post PC용 가변형 박막전지」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며, 6년 간 57억원(30억원 : 정보통신부지원, 27억원 : 산업체 등 대응자금)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대학 I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은 유망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학의 연구·개발을 지원, 창의적인 고급

정보기술 인력을 키우기 위해 정통부가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우리 대학교 IT연구센터는 경남지역에서 최초로 선정된 대학 IT연구센터이며, 고급전문인력 및 기초기술인력 양성, 산업인력 재교육, 잠재인력양성 등의 역할뿐 아니라 경남지역의 정보통신(IT)기술개발의 거점연구센터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센터는 Post PC인 wearable computer에 적합한 가변형 박막 전지시스템 개발을 최종 목표로 1단계(2003년~2007년)와 2단계(2007년-2009년)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1단계에서는 기존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형상변화가 가능하면서 고효율을 갖는 전지시스템의 개발과 이러한 전지에 적합한 전원회로 및 전지보호회로설계 및 개발, 2단계에서는 wearable computer뿐만 아니라 형상변화가 가능한 제품 특성에 맞는 전지 및 전원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편리한 PC를 몸에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옷이나 안경, 모자 등의 의복과 컴퓨터를 접목시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PC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형상변화가 가능한 전지의 개발과 그 변환시스템의 개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교 IT연구센터는 경남지역의 정보통신기술 개발의 거점연구센터로 발전할 것이며, 경남지역의 IT연구개발의 지역혁신 중심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산정보원 현판식

전산정보원(원장 안인섭)은 3월 6일 조무제 총장, 안인섭 전산정보원장(재료공학부) 등 대학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산정보원 현판식을 갖고 올해를 '교수들의 연구와 학생교육에 차질 없는 전산서비스 원년'으로 삼고 정보지원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전산정보원은 종전 전자계산소와 정보교육원이 통합돼 전산정보원으로 승격된 것이며, 현판은 故 은초 정명수 선생의 장남인 하정 선생의 친필이다.

보건진료소 현판식

보건진료소(소장 백원영)는 2월 23일 방학기간동안 보수공사 및 확장 공사를 실시하여 보건진료소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보건진료소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각종 의약품과 비만 측정기, 혈압기 등의 의료기를 갖추고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학병원에서 화, 목요일에 보건진료소 의사가 파견 나와 교직원 및 학생들의 건강을 검진 중이다.

학생기숙사 닭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학생기숙사(사감장 최용수)에서는 3월 5일 조무제 총장, 본부 보직자, 단과대학장 및 본부과장, 기숙사 학생 등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닭고기 소비촉진 시식회를 가졌다.

조무제 총장은 "양계농가의 어려움은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온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농업인에 대한 각계 각층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산업시스템공학부 이색적인 졸업식 호응

산업시스템공학부(학과장 전차수)는 2월 25일 학위수여식날 모든 학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체학과 교수들이 37명 졸업생 모두에게 학위증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해 대학졸업식장에서 사라져 버린 스승과 제자의 정을 나누는 이색적인 졸업 피로연을 열어 화제가 되었다.

과거 졸업식장에는 상장과 졸업장을 받는 학생 대표들만 참가하고 대다수 졸업생들이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고 가족들과 교정에서 사진을 찍다가 학과 사무실에서 졸업장을 찾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산업시스템공학부는 졸업식장을 찾은 가족들과 함께 사진촬영 이후 즉석에서 사진을 프린팅하는 서비스도 펼쳤다.

전차수 교수는“졸업생들이 졸업식날‘사진찍는 날’이 아니라 최소한‘졸업장을 받는 날’로 인식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며“되도록이면 졸업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되도록 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재갑 씨 고서 1,100여권 기증

경상대학교 도서관(관장 허보영)에서는 경남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897번지에 사는 김채갑(金塚甲, 78)씨로부터 문중 대대로 소중하게 보관해오던 귀중한 고서 1,100여권을 기증받았다. 김채갑씨는 김해김씨 서암공파(犀巖公派) 13세손으로, 계남(桂南) 김진표(金鎭杓, 1861~1939)공의 증손이다.

김해김씨 서암공파가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에 자리를 잡게 된것은 지금부터 약 400여년전 서암공 김명옥(金命玉)이 임진왜란 때 난을 피해 이 마을에 정착하면서부터다. 마을에 물소 모양의 바위가 있어 이때부터 자신의 호를 서암이라 하고, 이후 후손들은 자신들을 서암공파라 불렀다.

지금까지 이 마을에 세거하면서 조상 대대로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여 사의정(四宜亭)을 짓고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였다. 기증 고서는 계남공이 창건한 사의정에 소장되어 있던 고서들이다.

집안 대대로 진주지역 유학자와 교류하여 조상의 묘갈은 진주 인근의 유학자 일산(一山) 조병규(趙昞奎), 농산(農山) 장승택(張升澤), 노백헌 권재규(權載奎) 등이 짓기도 하였다.

김채갑씨는 통영의 중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건국대학교 서무과장·학생과장 등을 지냈고, 10여년전 부친을 봉양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와 문중일을 돌보고 있다. 기증한 고서 가운데는 『구암선생문집』·『만성집』·『이당선생문집』 등 경남지역 유학자의 문집과 『논어』·『시경언해』 등의 학습서와 부친이 쓴 10폭 병풍용 친필 글씨 등이 있다.

도서관에서는 앞으로 4개월 가량의 분류, 정리 작업을 거쳐 기증 고서를 연구자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기증고서는 계남문고(桂南文庫)로 명명하여 도서관 고서실인 문천각에서 영구 관리할 계획이다.

우리 경상대학교 도서관은 1986년부터 고서를 소장하기 시작하여 1988년 경남지역 최초로 도서관내에 고서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로서 문천각에는 아천문고를 비롯하여 8번째의 개인문고를 설치하게 되었고, 소장 고서는 1만 6000여권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경상대팀 우승

- 철학과 김정진·최재용

우리 대학교 김정진(인문대학 철학과 4)학생과 올해 졸업생인 최재용(24)학생이 지난 3월 2일 방송된 한국

방송 프로그램 '도전! 역사퀴즈' 100회 특집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6일 방송된 진주편에서도 14개 참가팀 가운데 사범대 역사교육학과 팀과 공동우승을 차지해 '퀴즈스타'로 떠오른 뒤 각 지역 우승팀끼리 맞붙은 왕중왕전에서도 우승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김정진 학생은 지난해 인문대학 퀴즈대회에 나가 1등을 하는 등 퀴즈왕이라는 말을 평소에도 들었다.

또 최재용 학생은 지난 2월 25일 졸업한 뒤 학사장교가 돼 마지막 학창시절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장식했다.

김정진 학생은 “진주편에서는 진주성, 향교, 형평사 기념탑, 청곡사 등을 돌며 역사퀴즈를 풀었는데, 진주출신이 아니어도 상황 판단력이나 추리력만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또 서울편에서도 종묘, 사직, 성균관을 돌며 진행됐는데 문제 푸는 어려움보다 오히려 매서운 추위 때문에 힘들었다고 밝혔다. 같은과 선배로서 절친한 이들은 “졸업하기 전 좋은 추억을 만들어 기쁘다”면서 “당시 출연자들과 스태프끼리 카페를 만들어 자주 소식을 주고받고 있다”며 즐거워했다.

한편 한국방송의 ‘도전! 역사퀴즈’는 일반적인 역사 지식을 묻고 답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고정관념을 깨고 추리와 논리를 바탕으로 역사적 흐름을 짚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역사 퀴즈 프로그램이다.

초·중등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모집

교육대학원(원장 문병태)에서는 초·중등학생들의 교과선택·생활지도·학습부진아 지도·진로선택 등에 전문적인 지도를 해줄 상담교사 양성과정 지원자 각 30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초·중등학교 2급 이상의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교육 전문직 포함)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현직 교원이다. 또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연수지명을 받아야 한다.

계절제 1년 과정을 마치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수여하는데 여름학기는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겨울학기는 2005년 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 열린다.

원서는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nongae.gsnu.ac.kr/~gradedu>)에서 교부하고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접수한다. 또 면접은 5월 1일 실시하며, 최종 합격자는 5월 7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연수경비는 한 학기당 75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교육대학원 행정실(교육학관 2층) 055-751-5094, 5095로 하면 된다.

인제대 성장모 총장 초청 특강

- 한국 지방대학 교육의 선진화와 글로벌 전략

우리 대학교는 3월 26일 남명학관 남명홀에서 성장모 인제대학교 총장을 초청하여 ‘한국 지방대학 교육의 선진화와 글로벌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회는 미국 메사추세츠(Massachusetts) 주립대학에서 산학협력 분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성장모 총장을 초청하여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일명 누리(NURI)사업)과 관련한 경험과 전략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장모 총장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뒤 26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23년간 교수와 과학자·사업가로 유명하였으나, 40대의 ‘젊은 총장’으로 변신해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성장모 총장은 “지방대학이라도 고품질 교육을 실시하고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하면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학의 CEO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소 소신을 밝혀왔다.

또 성장모 총장은 인제대 총장 취임 당시 “고품질 교육을 통한 학생특성화를 추진, 유학을 가장 많이 나가는 학교로 만들어 앞으로 10~15년 뒤 졸업생이 수억원씩 기부하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지방대학 교육혁신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강연에서 성장모 총장이 갖고 있는 지방대학 교육의 선진화와 세계화 방안들이 진지하고도 적확하게 제시되었다.

특히 현재 전국 각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직원들은 성장모 총장의 미국에서의 경험으로부터 산학협력에 필요한 전략·전술을 전수받는 자리가 되었다.

성장모 총장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Ohio) 주립대와 리하이(Lehigh) 대학원에서 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메사추세츠 주립대에서 종신교수, 첨단소재연구소·나노상용화연구소장으로 10여년 간 연구활동을 하면서 한국 벤처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사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인문학연구소 ‘고구려사, 무엇이 문제인가’에 관한 학술대회

인문학연구소(소장 이영석)는 3월 10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고구려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봄철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인문학연구소의 학술대회는 쟁점이 되는 주제를 선택, 교수·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는데, 이번에도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접근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노중국 교수(계명대 사학과)가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과 우리의 대응', 김유철 교수(연세대 인문학부)가 '중국에서 '동북공정'의 추진배경과 그 성격', 이진 교수(경상대 사회교육학부)가 '민족에 대한 개념규정과 고구려사에 대한 인식 문제', 김승렬 교수(경상대 인문학부)가 '유럽역사분쟁지:알사스-로렌, 독일 땅인가 프랑스 땅인가?'등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어 김수태 교수(충남대 국사학과)와 김해영 교수(경상대 사회교육학부)가 종합논평을 한 뒤 조영제 교수(경상대 인문학부)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을 주장하는 중국의 논리는 무엇이며 이러한 주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다. 또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논리도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 자료해석의 문제 등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특히 한민족의 형성과정과 민족의 개념 등을 과학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명확한 대응 논리를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국공립대학도서관·정보학 세미나

제41차 국공립대학도서관·정보학 세미나가 지난달 26일부터 27까지 이틀간 남명학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장원철 교수(한문학과)의 '동아시아 문명과 서적 분류의 역사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 우리 대학교 도서관 강홍구 사서(경상대 도서관)의 '대학도서관 주제자료실의 활성화 방안', 이정희 사

서의 '국립대학 도서관 고서실의 발전방향 연구'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비롯하여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50개교의 도서관 직원이 참석하였다. 이를 계기로 도서관간의 정보공유와 전문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무제 경상대학교 총장 일본방문

- 자매결연, 민단지도부 초청, 현지 최고관리자과정 개설 등 추진키로

우리 대학교와 일본 후쿠오카·오사카 등 일본 관서지역 대학·상공인·교포들과의 교육·문화 교류 활성화로 우리 대학교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조무제 총장과 백종국 기획연구처장 일행은 대학발전기금 모금과 교육·문화·인적 교류, 대학발전방안 협의 등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오사카·나고야 이즈미사노 시 등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일본 오사카 민단 본부장과 학원장·이사장을 만나 일본에서의 재일교포 민족교육 진흥 방안을 논의한 뒤 오사카 지역 상공인들과의 산학협동 기회와 인적교류 등을 위해 현지 최고관리자과정 개설에 대해 협의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강사진 확보 등이 이뤄지면 재일교포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의 현지 최고관리자과정이 개설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사카대학과 대학간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결과 현재 교류중인 재료공학분야를 기반으로 교류분야를 확대하고 올해 중 오사카대학 총장 초청에 맞춰 학교간 자매결연을 맺기로 했다.

오사카경제법과대학·나고야 도요하시과학기술대학도 방문, 대학간 교류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과 국제공동연구분야 개발 등 대학간의 발전방안도 모색했다.

특히 이번 일본 방문에서 방문단은 호박물산 회장이며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의 고문인 정환기 회장과 김재숙 단장을 만나 민단 지도부 전원을 오는 10월 개천예술제 때 진주지역으로 대거 초청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단 지도부의 방한과 경상대학교 방문이 성사될 경우 전국 최고의 지방예술제인 개천예술제에 재일교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가시화돼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교포 2-3세에 본국 문화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경상대학교 발전기금 확충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일본 방문은 직접 발로 뛰는 세일즈 총장이 되겠다는 조무제 총장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일본 관서지방에 거주하는 경남 출신 재일 거류민, 일본 유력 인사들과 경상대학교의 발전방향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조무제 총장은 "일본 첫 방문에서부터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둔 것 같다"면서 "이번 논의들을 점차 확대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대학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국 처장도 "방문기간 내내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으며 가능성 있는 것부터 착실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일본 관서지방 대학·기업인·교포들에게 우리 대학교의 인상을 강하게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교수회 신입회장 조규태 교수 선출

교수회는 3월 10일 국제어학원 종합강의실에서 교수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조규태(국어교육과)교수를 선출했다.

또 부회장에는 장기철(의학과)·염말구(해양생산학과)·정진주(불어불문학과)교수를, 감사에는 김석근(불어불문학과)·김영석(사회교육과)교수를 각각 선출했다.

신임 조규태 회장은 "교수회는 교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평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기관"이라며 "집행부인 대학본부가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회장은 "집행부가 잘하면 적극 도와줄 것이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심의과정을 통해 고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집행부와 평의회와의 균형을 통해 대학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태 회장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서 문학사, 문학석사, 대구카톨릭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81년부터 우리대학교에 재직하면서 국어교육과장, 학생부처장 겸 신문방송사 주간, 경남문화연구소장, 사범대학 교수회장, 중등교육연구소장, 교육연구원장(현재) 등을 역임하였다.

신임학장

인문대학장 - 황병순 교수

황병순 교수(국어국문학과)는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문학사, 문학석사,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3년부터 우리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인문대학 교무과장, 교무부처장 등을 역임하였다.

사회과학대학장 겸 행정대학원장 - 박종수 교수

박종수 교수(경제학과)는 경희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사, 경제학 석사,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4년부터 우리대학교에 재직하면서 경제학과장, 사회과학대학 교학위원회 부위원장, 국제지역연구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정년퇴임교수 훈포장 전수식

우리 대학교는 3월 2일 상황실에서 정년퇴임 교수 훈·포장 전수식을 가졌다. 이번에 정년퇴임하는 교수는 강대호 교수(과학교육학부), 안영희 교수(가정교육과), 권판근 교수(체육교육과), 서명득 교수(수의학과), 광수동 교수(수의학과), 김무상 교수(해양생물이용학부)이며, 안영희, 권판근, 서명득, 광수동, 김무상 교수는 황조근정훈장을, 강대호 교수는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강대호 교수(사범대학 과학교육과)

강대호 교수는 부산대학교 화학과 이학사, 이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68년부터 우리대학교에 재직하면서 과학교육과장, 과학교육연구소장, 교육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안영희 교수(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안영희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가정학과 가정학사, 건국대학교 가정학 가정학석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65년부터 우리대학교에 재직하면서 가정교육과장을 역임하였다.

권판근 교수(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권판근 교수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과 이학사, 건국대학교 교육학 교육학석사, 세종대학교 교육심리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70년부터 우리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사범대학 교무과장, 학생과장, 체육교육과장, 국민생활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서명득 교수(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서명득 교수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과에서 수의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2년부터 우리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수의학과장, 수의과대학 교무과장, 가축위생연구소연구관, 동물의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곽수동 교수(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곽수동 교수는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과에서 수의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3년부터 우리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수의과대학 교무과장, 수의학과장, 동물의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김무상 교수(해양과학대학 해양생물이용학부)

김무상 교수는 부산수산대학 증식학과 수산생물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70년부터 통영수산고등전문학교에 재직하면서 도서관장, 교무과장, 양식학과장, 수산대학장 등을 역임하였다.

문승한 교수 경남교원단체 총연합회 부회장 선출

문승한 교수(교육학과)가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에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청과 단체 협약 등 교원들의 복지와 교수 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섭협약단체로 초·중·고 교사, 교수로 이루어져있다.

이에 문승한 교수는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으로서 교육청과의 단체협약에 노력하며 사범대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훈 교수 새송이 버섯의 항암활성물질 분리성공

박기훈 교수(응용과학식품공학부)팀이 진주산업대 연구팀과 공동연구로 새송이 버섯에서 항암활성물질을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박기훈 교수팀은 새송이 버섯을 30℃에서 건조하여 가루로 낸 다음 이를 유기용매 추출 및 HPLC 등을 이용한 활성 추적 분획법을 적용하여 분리함으로써 항암활성을 갖는 물질을 순수 분리했다.

이는 새송이 버섯의 항암물질을 5가지 분리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 에르고스테롤 프록사이드(EP)는 암세포 억제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훈 교수팀은 지난해 경남버섯연구회 심포지엄과 우리나라 최대 학술대회 중의 하나인 한국분자세포생물학에서 '새송이 항암활성물질 분리성공'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강희근 교수 『우리 문학 맛보기』 펴내

강희근 교수(국어국문학과. 시인)가 시, 수필, 소설에 대한 본격 감상론 『우리 문학 맛보기』(도서출판 한빛)

를 출간했다.

대학 교양교재와 초·중·고 교사들의 문학 감상 지도 지침서로도 활용될 수 있는 이 책은 일반 교양인들에게는 문학분야 독본 구실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감상'보다 '맛보기'라는 말을 쓰면서 시, 수필, 소설의 맛보기 요령, 맛보기 단계를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독자들이 함께 맛보기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좋은 작품으로 김춘수, 전봉진, 이형기, 박재삼 등 시인들의 시, 피천득, 오지호, 오학영, 윤오영 등의 수필, 이청준, 김원일, 황석영, 조정래 등의 소설을 들고 맛보기 단계를 실천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시 낭송도 맛보기의 하나라고 전제하고 낭송의 요령을 설명하고 있으며 부록으로 초·중·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 시 읽기'와 '맛보기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는 학습자 중심 교육 지침서의 의미가 부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196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등장한 이래 『연기 및 일기』 등 9권의 시집, 『우리 시문학 연구』 『시 읽기의 행복』 등 10여권의 저서, 『한국고전소설 20선』 등 2권의 편저를 낸 바 있다.

윤호진 교수 효행록 편찬

윤호진(한문학과) 교수는 효행록을 편찬해 윤리와 도덕이 흔들리는 사회에 효와 정의 참 의미를 전달했다.

이번에 출간한 효행록은 윤호진 교수가 대학 시절 접했던 효행록을 다시 읽고 부족한 점을 발견, 원본에 충실하여 번역한 것으로 중국의 효자 64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기존의 효행록이 그렇듯, 이 책에도 중국의 효자 64인에 대한 소개와 찬양, 그리고 평가를 담았다. 설명을 덧붙이면 효행록은 24명의 효자를 소개하는 24편의 글과 40명의 효자를 소개하는 38편의 글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앞의 24편은 고려 후기의 세도가인 권준이 엮은 것이고, 뒤의 38편은 아버지 권보가 아들의 뜻을 가상히 여겨 추가로 엮은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권보의 증손인 조선초기의 학자 권근이 평설을 붙인 뒤 1405년 간행했다.

윤 교수는 효행록 원본을 함께 수록하고 번역은 직역을 위주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역을 했다. 뿐만 아니라 효행록 연구편에 기존에 발표했던 두 편의 논문과 별도의 글을 합해 해제의 성격이 되도록 구성했다.

윤 교수는 "세종은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효제를 돈독히 하고 풍속을 후하게 이끌기 위한 방책으로 효행록 읽기를 권장했다"며 "요즘 사람들의 삶의 방식 내지는 생각 차이가 크다고 할지라도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이치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변할 수 없는 것이다"며 "효행이 절실한 이 시대에 이 책을 통해 살기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명변경을 위한 성명서

총동문회(회장 정구용) 교명변경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월 23일 집행부 및 동문, 재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명변경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특별위는 "경상대학교가 경남거점 국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종합대학교를 뜻하는 '慶尙大' 인지 종합대학의 단과대학인 '經商大'인지 혼동돼 학교위상 추락과 학생취업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위는 "경상대학교가 지금의 교명을 사용하게 된 것은 박정희 정권 때 실제 중 한사람이 경남이란 명칭을

자신의 일가가 설립한 사립재단에 가져감에 따라 빚어진 것"이라며 "교명을 경남국립대학교로 개명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위는 최근 마산시 소재 경남대학교의 유사교명 주장에 대해 "서울에는 서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가 공존하고 있으나 누구도 유사교명이라 하지 않는 것처럼 경남대학교와 경남국립대학교 역시 유사교명이 아니며 교육부는 교명변경을 인가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총동문회와 특별위는 앞으로 재학생과 교수, 교직원, 동문, 진주시민 등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교명변경운동 추진위를 구성해 교명변경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산악회 시산제

총동문회(회장 정구용) 집행부, 산악회(회장 정한택) 임원진 및 회원, 동문가족 100여명은 3월 14일 지리산 주산에서 한해 무사고 산행을 비는 시산제를 지냈다.

이번 시산제에서는 총동문회 산악회 정한택 회장이 초헌관, 원로 재직교수인 박중춘 교수(식물자원환경학부)가 아헌관, 총동문회 홍성국 사무국장이 종헌관을 맡아 모교와 총동문회의 발전과 산악회의 안전 산행을 기원하였다.

직능별 정기총회

산업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신입회장에 이무웅씨를 선출하였으며, 2월 27일 귀빈예식장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또 행정대학원 총동문회는 2월 27일 한국시대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최윤명 회장이 유임되었으며. 부회장에 정상노, 사무국장에 김강조 동문이 선출되었다. 한편 동문골프회는 3월 29일 진주 컨트리클럽에서 총동문회장배 동문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교원인사

보직

-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부 교수 최진범 → 학생지원처장(3.1)
-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교수 안인섭 → 부속 전산정보원장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황병순 → 인문대학장
-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박중수→사회과학대학장 겸 행정대학원장
- 인문대학 인문학부 교수 이성환 → 인문학부장
-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교수 서양중 → 정치행정학부장
-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부 교수 정기수 → 기초과학부장
-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 정명기 → 생명과학부장
-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부 부교수 김성희 → 생활과학부장
- 자연과학대학 컴퓨터과학과 교수 이부권 → 수의예과장
-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정보학부 부교수 임동훈→수학.통계정보학부장
- 자연과학대학 컴퓨터과학과 교수 강현석 → 컴퓨터과학부장

-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김학수 → 경영학부장
- 공과대학 건설공학부 교수 유환희 → 건설공학부장
-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이병호 → 건축학부장
-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부 부교수 차춘남 → 산업시스템공학부장
- 공과대학 응용화학공학부 교수 이기창 → 응용화학공학부장
-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조교수 조권구 → 재료공학부장
-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시스템공학부 조교수 송대빈 → 농업시스템공학부장
-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교수 이진 → 사회교육학부장
-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강영실 → 대학원 간호학과장
-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고영훈 → 대학원 건축공학과장
- 경영대학 경영학부 조교수 최병국 → 대학원 경영정보학과장 직무대리
-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양희석 → 대학원 경제학과장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김지홍 → 대학원 국어교육학과장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박성석 →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장
-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교수 서양중 → 대학원 국제관계학과장
-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이건명 → 대학원 기계공학과(학연협동과정) 주임교수, 기계공학과장
-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배명환 → 대학원 기계설계학과장
-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부 교수 정기수 → 대학원 물리학과장
-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 이갑열 → 대학원 미술학과장
- 대학원 응용생명과학부 부교수 임채오 → 대학원 분자생물학과(협동과정) 주임교수
-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교수 이진 → 대학원 사회교육학과장
-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서미경 →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장 직무대리
-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이혜숙 → 대학원 사회학과장
-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부 부교수 차춘남 → 대학원 산업시스템공학과장
-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정보학부 부교수 김광일 → 대학원 수학과장
-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이민규 → 대학원 심리학과장 직무대리
-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길수 → 대학원 영어영문학과장
-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교수 박원희 → 대학원 음악학과장
-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부 부교수 김주애 → 대학원 의류학과장
-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조교수 조권구 → 대학원 재료공학과 주임교수
-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부교수 마대영 → 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학연협동과정) 주임교수
-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정보학부 부교수 임동훈 → 대학원 정보처리학과장
- 인문대학 인문학부 교수 이성환 → 대학원 철학과장
- 자연과학대학 컴퓨터과학과 교수 강현석 → 대학원 컴퓨터과학과장
- 기계항공공학부 조교수 김병수 → 대학원 항공공학과장
-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김용대 → 대학원 해외지역학과(협동과정) 주임교수
-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조교수 김주찬 → 대학원 행정학과장
- 공과대학 응용화학공학부 교수 안주현 → 대학원 화학공학과장

- 자연과학대학 컴퓨터과학과 교수 김상복 → 정보과학대학원 멀티미디어학전공 주임
- 자연과학대학 컴퓨터과학과 부교수 하석운 → 정보과학대학원 소프트웨어학전공 주임
-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교수 이효종 → 부속 동물병원장
-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정보학부 교수 강신민→부속 기초과학연구소장
-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전만수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장
-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교수 김준형 → 경남문화연구원장

휴직

-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 박형빈(2004. 3. 1 - 2004. 8. 31.)

전입

- 교육인적자원부 서기관 이동진→기획연구처 기획과장(3.5)
-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과 교육행정사무관 하만호 → 산학협력단
- 서울대학교 사무국 총무과 교육행정주사 권승지→ 교육행정사무관, 법·경·사회과학대학 통합행정실장
- 목포대학교 전산정보원 전산주사 최광휘 → 전산사무관, 전산정보원

전보

- 학생지원처 학생복지과장 서기관 손유열 →교무처 교무과장(3.6)
- 기획연구처 기획과장 서기관 전제상 →학생지원처 학생복지과장
- 교무처 교무과 교육행정사무관 박정규 →학생지원처 입학장학과장
- 농·수의과대학 행정실장 교육행정사무관 백무선 →사무국 총무과
- 학생지원처 입학장학과장 교육행정사무관 김장환 →농·수의과대학 통합 행정실장
- 법·경·사회과학대학 통합행정실 교육행정사무관 이선표 → 의과대학 행정실장(3.1)
- 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 교육행정주사 최성규 → 교무처 교무과
- 기획연구처 기획과 교육행정주사 안영균 → 교무처 학사관리과
- 공동실험실습관 교육행정주사 이남순 → 교무처 학사관리과
- 학생처 학생지원과 교육행정주사 하중근 → 학생지원처 학생복지과
- 교무처 교무과 교육행정주사 원재수 → 학생지원처 학생복지과
- 법·경·사회과학대학 교육행정주사 김재기 → 학생지원처 입학장학과
- 교무처 교무과 교육행정주사 진영권 → 기획연구처 기획과
- 교무처 학사관리과 교육행정주사 김정근 → 인문대학 행정실
- 교무처 학사관리과 교육행정주사 박윤희→농·수의과대학 통합행정실
- 농·수의과대학 통합행정실 교육행정주사 정성진 → 법·경·사회과학대학 통합행정실
-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교육행정주사 김원구 → 박물관
- 학생처 장학복지과 교육행정주사 김수득 →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 인문대학 행정실 교육행정주사 심도섭 → 산학협력단 파견 근무를 명함
- 전자계산소 전산주사 강홍래 → 전산정보원
- 전자계산소 전산주사 이현두 → 전산정보원

- 사무국 시설과 건축주사 천석수 → 해양과학대학 행정실
-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연습림 임업주사 나영학 → 사무국 총무과
- 사무국 총무과 임업주사 김지환 →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연습림
- 학생처 장학복지과 식품위생주사 강경향 → 학생지원처 학생복지과
- 사무국 총무과 교육행정주사보 박인 → 교무처 교무과
- 학생처 학생지원과 교육행정주사보 유정 → 교무처 학사관리과
- 사무국 총무과 교육행정주사보 김정연 → 학생지원처 학생복지과
- 교무처 교무과 교육행정주사보 조용제 → 학생지원처 입학장학과
- 사무국 경리과 교육행정주사보 김복정 → 학생지원처 입학장학과
- 농·수의대과대학 통합행정실 교육행정주사보 조용찬 → 기획연구처 연구지원과
- 학생처 장학복지과 교육행정주사보 이윤임 → 사무국 총무과
- 교무처 교무과 교육행정주사보 정대화 → 사무국 총무과
- 교무처 학사관리과 교육행정주사보 유범식 → 공과대학 행정실
- 기획연구처 연구지원과 교육행정주사보 임정숙 → 농·수의과대학 통합행정실
- 기획연구처 연구지원과 교육행정주사보 김동환 → 공동실험실습관
- 전자계산소 교육행정주사보 황경숙 → 전산정보원
- 전자계산소 전산주사보 김성균 → 전산정보원
- 전자계산소 전산주사보 이용범 → 전산정보원
- 전자계산소 전산주사보 장은옥 → 전산정보원
- 전자계산소 전산주사보 최수희 → 전산정보원
- 기획연구처 연구지원과 보건주사보 황충로 → 농·수의과대학 통합행정실
- 기획연구처 연구지원과 별정 8급상당 강영규 → 산학협력단 파견
- 공과대학 행정실 기능8급 신철홍 → 교무처 교무과
- 박물관 기능8급 광병휘 → 교무처 학사관리과
- 학생처 학생지원과 기능8급 박원일 → 학생지원처 학생복지과
- 학생처 장학복지과 기능8급 안정원 → 학생지원처 입학장학과
- 사범대학 행정실 기능8급 안영희 → 학생지원처 입학장학과
- 사범대학 행정실 기능8급 류진형 → 기획연구처 연구지원과
- 의과대학 행정실 기능8급 성홍주 → 사무국 경리과
- 국제어학원 기능8급 유형열 → 사무국 경리과
- 수송기계부품기술혁신센터 기능8급 신용희 → 자연과학대학 행정실
- 교무처 교무과 기능8급 김태규 → 사범대학 행정실
- 사무국 경리과 기능8급 유병환 → 학생생활·취업지원센터
- 정보교육원 기능8급 이두규 → 전산정보원
- 교무처 학사관리과 기능9급 김필금 → 교무처 교무과
- 법·경·사회과학대학 통합행정실 기능9급 배용조 → 교무처 교무과
- 농·수의과대학 통합행정실 기능9급 김창연 → 교무처 학사관리과
- 학생처 장학복지과 기능9급 최성대 → 기획연구처 연구지원과

- 사무국 경리과 기능9급 이원수 → 의과대학 행정실
- 교무처 학사관리과 기능9급 오삼석 → 학생생활·취업지원센터
- 교무처 교무과 기능9급 신영숙 → 국제어학원
- 전자계산소 기능10급 홍금란 → 전산정보원
- 자연과학대학 행정실 기능10급 홍승희 → 사무국 경리과
- 사무국 시설과 기성회직 김미옥 → 교무처 교무과
- 교무처 학사관리과 기성회직 유희정 → 교무처 교무과
- 학생처 학생지원과 기성회직 이향임 → 교무처 학사관리과
- 사무국 경리과 기성회직 정난희 → 학생지원처 학생복지과
- 학생처 학생지원과 기성회직 성유미 → 학생지원처 학생복지과
- 교무처 교무과 기성회직 손경숙 → 학생지원처 입학장학과
- 학생처 장학복지과 기성회직 강미영 → 기획연구처 연구지원과
- 사무국 총무과 기성회직 강경임 → 기획연구처 연구지원과
- 자연과학대학 행정실 기성회직 조미란 → 사무국 총무과
- 기획연구처 연구지원과 기성회직 심정선 → 사무국 경리과
- 사무국 총무과 기성회직 박미향 → 사무국 시설과
- 교무처 교무과 기성회직 김선숙 → 자연과학대학 행정실
- 전자계산소 기성회직 이영란 → 전산정보원
- 교무처 교무과 기성회직 조미정 → 산학협력단

신규임용

- 홍보팀장 우수기(3.1)
- 학내순찰원 김기욱, 안광훈, 심형준

전출

- 경상대학교 교육행정주사 김갑수 → 교육행정사무관, 순천대학교(2.26)
- 교육행정사무관 정영태 → 교육인적자원부
- 경상대학교 전산사무관 이원준 → 경북대학교

결혼

-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정영관 교수 차남 결혼(3.20)
- 자연과학대학 수학·통계정보학부 정진운 선생 결혼(3.7)
-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부 고영두 교수 막내 결혼(2.15)

조사

- 공과대학 건축학부 오인환 교수 부친 별세(3.13)
-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물이용학부 김진수 교수 부친 별세(2.25)

